

“먹고 싶 곳 없는데 손님 오겠나”

도의회 어제 민생 간담회
중앙로·칠성로 상인들 만나
“도민·관광객 유인 위해
상권 특화·먹거리 공간 필요”
도시장 “현장과 소통하며
해결책 찾아 나가겠다”



제주도의회가 원도심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연 가운데 25일 제주시 중앙로·칠성로상점가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이전에도 온라인에 밀려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19가 (온라인 쇼핑 물 성장을) 더 가속화했습니다. 최근엔 경기까지 침체되며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요즘엔 도민 손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급리에 힘든데 누가 브랜드 옷을 사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5일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제주소통협력센터에서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선 이 같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곳의 대표 상권인 중앙로, 칠성로 일대 상인들은 정주 인구 감소에 생활인구까지 줄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상권이 위치한 제주시 일도1동의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2584명에서 해마다 줄어 올해 6월말 2168

명에 그쳤다. 최근 4년 사이에 16% 넘게 감소한 수치다.

인구 감소에 상권 침체까지 더해지며 빈 점포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시 중앙상거리 일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7.4%였다. 최근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칠성로 1~4가 아케이트 인접 상가를 조사한 결과에선 공실률이 그보다 높은 24.8%로 나타났다. 점포 5곳 중 1곳은 영업하지 않은 채 비어 있다는 얘기도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도민, 관광객 등의 발길을 잡아야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상권의 특색이

없다는 거다. 고정호 중앙지하상점가진흥조합 이사장은 “동문재리시장이나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며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결국엔 상권을 특화시켜 관광객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상가 구성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했다.

먹을 곳도 쉴 곳도 부족한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쇼핑 외에 방문객을 이끌 요인이 있어야 상점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상인들은 입을 모은다.

김선에 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제는 상점가 방문객이 대부분 젊은 중국인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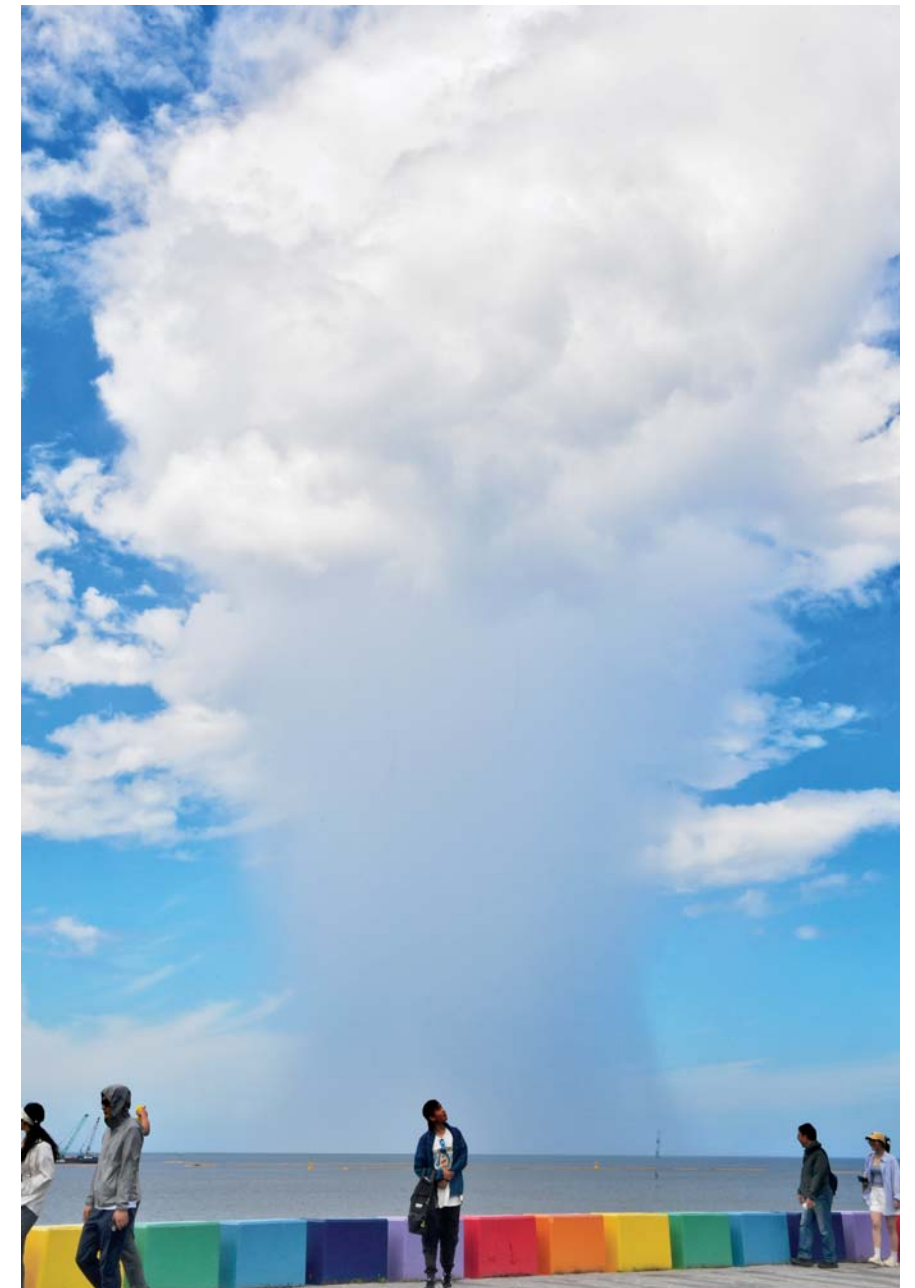
객인데, 하나같이 칠성로 인근에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느냐’고 말한다”면서 “10년 전부터 나오는 문제이지만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점가 안에는 가로수가 없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다”면서 탑동광장을 활용한 먹거리 공간 운영, 녹지 조성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상인들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로 배수구 정비, 주차장 용지 추가 매입, 고도 제한 완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담회에는 이상봉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장인 양홍식 의원과 양홍식·한권 의원, 고익숙 교육의원 등이 동행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수렴한 현장 의견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하루 전에는 제주북초등학교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찾

았다. 이상봉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도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은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국지성 폭우가 눈앞에서 25일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 해안도로 앞 바다에 지리한 먹구름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다. 이상국기자

도 ‘민생경제활력지원단’ 구성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위기를 넘기 위해 ‘민생경제활력지원단’을 구성하고 나섰다. 행정부지사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은 25일 첫 회의를 열고 제주경제 맞춤형 해법 찾기에 돌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원단은 제주도 35개 부서와 제주시·서귀포시 경제국장을 비롯해 제주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꾸려졌다. 모두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력체이다.

주요 임무는 민생경제 활력 과제 발굴과 범도민 소비촉진협의체 운

영 등이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과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연계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며 지역경제 회복 분위

기 확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단에 대해 ‘범도민 소비촉진 협의체’도 운영한다. 기존에 공공기관이 중심이 됐던 전통시장, 골목상권 방문을 통한 소비 활성화를 전 도민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와 별도로 도지사,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도민 소비촉진 대표협의체’도 구성한다. 김지은기자

제주 최대전력수요 2년 만에 경신

24일 오후 8시 1113.8MW… 동·하계 통틀어 최고

제주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35℃ 안팎까지 치솟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오후 전력수요가 동계와 하계 통틀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는 이날 오후 8시 제주지역의 최대전력수요가 1113.8메가와트(MW)로, 종전 최고치인 2022년 8월 11일의 1104.0MW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최대전력수요 경신 당시 제주시 기온은 30℃로, 무더위로 가정과 업소 등에서의 냉

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전력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전력수요가 최고에 달한 시간대 공급예비력은 253.8MW, 예비율은 22.8%로 수급은 안정적이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 최대 전력수요는 다시 경신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5년간 도내 하계 최대전력수요는 2019년 965.8MW, 2020년

1008.6MW, 2021년 1012.1MW, 2022년 1104.0MW, 2023년 1096.4MW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동계 최고치는 2023년 1월 27일 오후 6시에 기록한 1077MW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는 “6월 24~9월 6일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영해 이상고온, 연계선과 발전기 불시정지 등의 사태에 대비해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한림해상풍력 2차 고발 예고… 4년 / 제주 기업·가계대출 연체율 전국 최고… 6면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전통방식 그대로 맛을 낸~

고사리육개장 제주몹국

제주전통 요리 전문가가 정성을 다해 HACCP인증시설에서 안전하게 생산했습니다.

고사리육개장과 제주몹국은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1. 소자본으로 향토음식점을 창업하실 분
2. 메뉴 추가를 고민하시는 식당 사장님
3.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4. 단체급식 또는 도시락 업체 운영하시는 분

문의처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725-1100

